

조선대 대자협 “구성원 총의 외면 이사장 규탄”

차기 이사장 특정 교수 내정설 파다
현직 이사 “절차 훼손·사유화” 직격
학교법인 “내정설 사실무근” 반박

개교 80주년을 맞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차기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김이수 현 이사장의 독단적 행위를 규탄했다.

대자협은 “2026학년도 2차 회의에서 대학 구성 각 단위의 전체 합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법인 전환 추진’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방이사의 연임을 반대하고,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이사를 선임하며,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위해 대자협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이수 이사장은 대학 구성원 전체의 뜻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제5기 이사회 구성을 강행했다”며 “이는 민립대학의 설립정신과 공공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온 공적 자산”이라며 “구성원의 총의를 외면한 채 독단적 운영을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구 ‘통합돌봄 대청소 서비스’ 30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관내 청소 지원이 필요한 돌봄 취약세대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원들이 광주 북구 통합돌봄 대청소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대자협은 제5기 이사회 구성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현재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이사 1인은 대자협이 추천하는 인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조성철 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이사장이 특정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정이사 구성을 추진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특정 인사를 사전에 ‘차기 이사장’으로 언급한 행위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사회 구성을 진행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절차 훼손이자 이사회 사유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민을 기반하는 행위이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조 이사는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차기 이사장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 실시와 사

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이사회 구성 전 과정에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투명한 절차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호선(이사회 구성원들이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로 현 이사장이 내정할 수 없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장 내정설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 262개 작은학교 경쟁력 키운다

도교육청, 특성교육 등 4개 영역 추진
AI디지털·독서인문·기후환경 등 다양
곡성·장흥, 특성화교육 클러스터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작은학교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교육’을 추진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202개교를 대상으로 ▲작은학교 특성교육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 ▲작은학교 특성화교육 클러스터 등 4개 영역을 추진한다.
학교별 특색 브랜드 교육과 학생 참여형 프로

젝트 수업, 지역 자원 연계 교육과정,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를 통해 작은학교 교육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특색교육은 AI디지털, 독서인문, 기후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개교가 참여한다.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지역 마라톤 완주 프로젝트, 캠버오케스트라 운영 등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특성화 모델학교는 진도오산초등학교 등 15개교에서 운영된다. 원도심학교형, 농산어촌유학 특성화형, 벽지소규모학교형, 도시인접 생태특화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적용해 학생 유입과 학교 활성화를 이끌 전략적 교육과

정을 전개한다.
특성화교육 클러스터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지역-학교 성장을 이끄는 모델이다. 올해는 곡성군과 장흥군에서 시범 운영된다.
곡성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한 ‘K-푸드 특성화교육 클러스터’를, 장흥교육지원청은 관내 16개 초·중학교 대상 ‘작은학교 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각각 선보인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례 문척초등학교 등 중심학교 5개교를 지정했다. 중심학교는 우수 사례 확산과 교원 연수, 학교 간 협업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맡아 작은학교 동반성장 체계를 만들어 간다. /박선욱 기자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 사업은 지명고등학교 등 총 21개교가 대상이다. 학생과 교사가 학교와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직접 영화로 제작하는 창의융합 프로젝트로 작은학교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전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

올해는 현장 교사들의 교육철학과 진정성을 담은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오버액션’의 작품 제작도 지원한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3회 작은학교 영화 영상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출범을 맞아 광주·목포·순천에서 동시 개최되며, 전남과 광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영화축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작은학교는 ‘작아서 불리한 학교’가 아닌 ‘작기에 더 강한 학교’이다”며 “전남의 작은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학교,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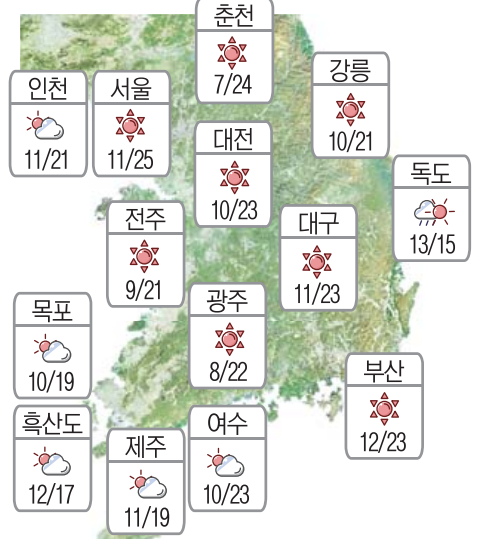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해질 19:18 🌙달돋이 19:04 달짐 05:00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8/22	장성	구름조금	6/20
목포	구름조금	10/19	보성	구름조금	7/21
여수	구름조금	10/23	함평	구름조금	7/20
나주	구름조금	6/21	순천	구름조금	9/23
완도	구름조금	8/22	영광	구름조금	7/20
구례	구름조금	7/22	진도	구름조금	10/18
강진	구름조금	6/21	흑산도	구름조금	12/17
해남	구름조금	6/21	고흥	구름조금	8/22
광양	구름조금	9/23	담양	맑음	6/21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부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	앞바다 0.5-0.5	0.5-1.0
서부	면바다(동) 0.5-1.5	0.5-1.5
	면바다(서) 0.5-1.5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2:00	07:13	여수	08:46	02:44	09:20
	14:02	19:18		21:18	14:42	21:57
			녹동		03:20	03:49
					21:57	15:41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7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2일(토)	3일(일)	4일(월)
☀(9/24)	☀(14/19)	☀(10/20)
구름조금	비온뒤 맑음	맑음
5일(화)	6일(수)	7일(목)
☀(8/22)	☀(9/24)	☀(10/25)
맑음	맑음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광고문의 : 062)650-2099